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53)

何時太平

하 시 태 평



어느 때가 되어야 세상이 태평하겠는가?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세월은 흘러 어김없이 또 한해를 넘긴다. 사람마다 새해에는 지난해 보다는 좀 더 나아지길 바란다. 그 바라는 최고의 내용은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는 태평성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역사에는 태평성대라고 부를 만한 시대는 그리 많지 않았다. 오히려 태평한 세월이 오기를 바라는 엄원한 경우가 더 많이 된다. 그러나 태평세월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니다. 이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태평한 세월이 올 방법을 준비하거나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 성세(盛世)가 오면 해야 할 일을 미리 준비한 황중희(黃宗羲)와 태평한 시대가 올 조건을 제시한 악비(岳飛)가 있다.

황중희는 명왕조(明王朝) 말기에 태어나서 만주족의 청(淸)에게 조국 멸망조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다. 물 밑 듯 내려오는 청군(淸軍)에 대항하려고 무장 조직을 만들었지만, 이 오히려 잡을 가지고 잘 훈련된 청군을 당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분명하였다.

그는 물러와서 명왕조가 왜 망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멸망하지 않고 치세(治世)가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나온 작품이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이다. 책 이름을 왜 명이대방록이라고 했을까?

명(明)은 주역(周易)의 괘(卦) 이름이다. 명(明)은 불, 광명이 땅속에 있는 상태를 형용한 괘이다. 명의 세상은 어둡고 캄캄한 상태이다. 황중희는 자기가 살고 있던 암울한 시대를 명(明)과 같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그리고 대방(待訪)이란 누군가 특히 세상을 밝게 잘 다스릴 꿈을 가진 명군(明君)이 방문(訪問)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말이다. 그런 사람이 오면 자기가 연구한 치세(治世)를 이를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요람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황중희의 꿈이 실현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청(淸) 왕조의 성군(聖君)으로 불리는 강희제(康熙帝)는 그에게 명왕조의 역사를 쓰는 책임을

져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의 제자 전조망(全祖望)을 보냈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한족(漢族) 왕조에 의해 이루어지길 바랐던 태평 시절은 오지 않았다. 그래도 그의 꿈 때문이었을까? 오히려 만주족 청왕조의 강희제에 의하여 60년 통치 속에서 전에 없던 성세(盛世)를 이루었다.

태평성세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금(金)에게 쫓겨 남쪽으로 내려왔던 남송 시절에도 있었다. 북송의 휘종(徽宗)과 흥종(欽宗)이 요(遼)를 멸망시키고 내려오던 금군(金軍)에게 포로가 되자, 겨우 살아남아 남쪽으로 내려간 조구(趙構)가 남송(南宋)의 황제로 자리잡고 후에 고종(高宗)으로 불리지만 그의 남송군은 금군(金軍)이라 내려온다는 말만 들어도 도망하기 일췌였다.

그 가운데서도 자기 군대를 철저히 훈련해서 금군(金軍)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군이 있었다. 그가 악비(岳飛)이다. 그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전투가 없는 시간이면 장병들에게 어김없이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또 그의 병사가 민간에게 삼배 한 오라기라도 빼앗는다면 바로 참수(斬首)하는 엄격한 군율(軍律)을 적용하였다. 반면에 부하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장군인 자신이 약을 지어 주었고, 조정에서 상급자라든 내리면 철저히 공평하게 분배하였다.

그러하니 악비의 군대는 강했고 금군과의 전투에서도 조금도 밀리지 않고 승리하였다. 그래서 금군(金軍)에서도 “산을 흔드는 일은 쉬워도 악가(岳家, 악비의 군대)의 군대를 흔들기는 어렵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하니 사람들은 악비에게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남송의 군대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서 남송은 항상 전진공군이었고, 기회만 있으면 금과 화의(和議)하려고 애썼다. 남송 고종(高宗)은 굴기(屈己)해서라도 화의하고자 했다. 굴기란 자기가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굽히겠다는 말이나, 금에게 온갖 것을 다 내주고라도 화의하겠다는 의지(意志)를 다졌다.

이에 따라 재상인 진회(秦檜)는 화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남송을

위해 잘 싸우는 악비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악비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였다. 이 처사를 본 장군 한세충(韓世忠)이 진회에게 불평하자 진회는 한세충에게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 그 일의 본체(本體)는 막수유(莫須有)지요.’라고 대답하였다.

막수유(莫須有)라는 말은 원래의 뜻은 “혹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만 그 후로 ‘덧붙여 주고 싶은 죄가 있다면 적합한 말꼬리를 찾지 못한다고 하여도 걱정할 것은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죄를 뒤집어씌울 수 있다는 뜻의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잘 싸우는 악비라고 하여도 살아남을 길이 없었다. 그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사사(賜死)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악비가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천하는 어느 시기가 되어야 태평할 것인가?”라고 그에게 묻은 일이 있다. 그는 한마디로 대답하였다. “문신(文臣)이 전폐(錢幣)를 아끼지 않고, 무신(武臣)이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지 않으면 천하는 태평해진다.” 문신은 서류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돈을 벌려고 들고, 무신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도망하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바로 자기 할 일만 제대로 하면 태평세월이 온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 치세를 위해 제도를 연구한 황중희의 명이대방록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정비해야 할 제도가 산처럼 쌓여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또 모함받고 죽어가면서도 각기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태평시대가 올 것으로 여긴 악비의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다.

국회는 제도 정비보다 패거리 싸움으로 헛되이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상황과 노동계건 교육계건 자기를 본연의 일을 하는 데 쓰는 노력보다 정치투쟁에 온 힘을 기울이니, 태평성대의 달성에 필수 요건인 제일을 제대로 하는 각득기소(各得其所)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모습이 고쳐진다면 새해에는 태평세월이 오겠지만 그럴까? 그럴까!

70대에 회상하는 가족사...

권선홍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그럴 수도 있겠지만, 5학년 때 이 선생님이 말씀이 떠올랐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나 같은 애길 드러보니 '나보다 큰일 한 사람도 많고 내 기억력도 많이 감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년 뒤에 저 세상으로 떠나셨다. 햇수로 북한생활 10년과 영어생활 24년.. 그 켜켜이 쌓여 있는 그 한 많은 사연들은 모두 땅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지나고 보니 아버지의 일본 생활이나 숙부의 삶을 좀더 들여보고 기록하지 못한 아쉬움만이 클 따름이다.

중3 수학교과서의 삼각함수도 못 배우고 졸업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대학은 못가도 좋으니 고교만이라도 다녀 보내달라고 때를 써서 인천으로 진학한 일은 이미 얘기하였다.

고교 3년 동안 대학 갈 수 있는지를 걱정하며 공부했고, 대학시절엔 고시에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공부를 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 풀릴 문제 아닌 난제 중의 난제!

외무사무원 임용된 20대 중반까지 길고도 암울한 시절이었다. 사방이 절벽으

로 막혀 움푹딴딴할 수도 없다는 깊은 절망감.. 색깔로 치면 짙은 회색빛. 그 길고도 어려운 길을 헤쳐나갔던 원동력은 내게 베풀어주시는 할머니와 어머니 아버지의 전폭적인 믿음과 사랑이었다. 내세가 있다면 그런 부모님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다.

70대가 되어 지나온 길을 회상하니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학교 4학년 1학기만 담임하신 박영조 선생님의 공부에 대한 자극이 없었더라면 이나마 오늘의 내가 있기 어려웠을 터.. 고1 때 1학기 담임 흥범석 선생님도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다. 외무부 임용 당시 여권심의관님, 육본시절 부관감님과 보좌관님, 그리고 학계로 이끌어주시는 김기선 대학 은사님 등등.. 삶의 고비마다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감사할 따름이다. 아무리 생각해보도 조상의 음덕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할머니께선 전쟁으로 백부와 숙부의 죽음과 복행이란 엄청난 일을 겪으셨음에도 굳굳이 이겨내셨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을 받아들여 우리집에 9가구가 살기도 했다. 적선지기에 필유여경이라 했으니...

권갑현 편집위원장 의령향교지 편집 발간

권갑현 편집위원장이 고향 의령의 향교지를 편집 발간했다. 무려 840여 페이지에 달한다. 손진우 성균관장이 발간사에서 “의령宜寧은 푸른 강과 큰 들이 에워싸고 있으며 예로부터 충절忠節을 숭상하여 많은 선비를 배출한 고을로 이름났습니다”라고 말하듯이, 권 위원장은 “이 향교지가 우리 고향 의령이 옛날부터 선비의 고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데 하나의 증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향교지 발간의

미를 밝혔다. 전국 향교 234개 중에 그동안 의령향교만 향교지가 없었다. 권갑현 편집위원장이 의령향교지를 편집 발간함으로써 의령향교도 향교지가 있는 향교가 됐다. 의령의 역사와 정신문화가 녹아 있는 의령향교지가 전국에서 가장 늦게 발간됐지만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권행안 편집국장 의령향교 전경

謹 賀 新 年

존경하옵는 안동권씨 100만 족친 여러분, 15개 파종회회장단 회장님, 전국 60여개 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장님, 전국 34 전국청장년회장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족친 여러분!
2023 癸卯年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오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협의회 회장 권갑수
사무국장 권영홍

지역	회장	사무국장	지역	회장	사무국장	지역	회장	사무국장	지역	회장	사무국장
강릉	권순상	권혁일	문경	권익	권칠욱	안양	권순보	권인상	제천	권병기	권형기
경산	권경수	권영승	봉화	권영만	권오서	영덕	권영구	권영태	진천	권정욱	권순성
경주	권범철	권진	부산	권부현	권덕림	영주	권오현	권용일	창원	권영민	권중수
광주	권석주	권영덕	산청	권병국	권희성	영천	권창섭	권병일	청송	권오경	권영호
구미	권영삼	권용범	상주	권중희	권영한	예천	권세은	권일수	청주	권광택	권혁만
능곡	권오성	권용철	서울	권정호	권순용	울산	권명달	권응목	태안	권용구	권오선
담양	권공식	권창만	시흥	권혁소	권기형	원주	권창구	권혁남	합천	권유상	권영식
대구	권기현	권오진	안강	권택진	권내연	의성	권오덕	권미란			
대전	권지원	권선교	안동	권대능	권기원	음성	권병택	권오문			

安東權氏 全國靑壯年會長協議會 會長 권갑수